



강세원 이사
(퓨리나코리아)

돈 가하락을 유도할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계속적인 돈가 고행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예상으로 지육 kg당 3,200원대 전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현재국내 돈육공급 상태는 한마디로 근래 이래 최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에도 계속적인 양돈사료 생산량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전년동기 대비 6.2% 감소라 하지만 전년동기가 IMF직후였고 또 당시 일시적인 출하가 이루어졌던 시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산지 돼지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모돈사료 생산량 감소추세를 보아 돼지부족 현상은 적어도 향후 1년간 지속할 전망이다.

수입거래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국내수입 원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수입쇠고기 또한 국내 돈육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다.

여기에 돈콜레라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돈육소비도 계절적인 수요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등 국내 공급·수요·수출입시장 전반적으로 돈가 하락 요인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국내 돈가 강세현상이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돈가 강세현상이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어 육가공업체의 채산성이 매우 걱정스런 수준으

지육 kg당 3,200원대 전후 강세 지속

수입돈육시장도 전년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돈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유럽산 돈육이 주로 일본시장으로 향하고 있어 국내 수입원가는 계속 올라갈 전망에 비해 국내 판가는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어 수입업체의 채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돈육보다 오히려 국산돈육과 대체관계에 있는 것이 수입쇠고기라 할 수 있는데 수입쇠고기 시장은 수입돈육 시장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IMF로 인해 아시아로의 수출을 크게 줄였던 북미 국가들이 공급라인의 조정으로 올 한해동안 공급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몽포드 상표사건까지 겹쳐

로 올라서고 있다. 다행히 5월 들어 본격적인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돈육판매가격도 곧 상승되어 육가공 및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시적인 돈가상승이나 하락현상보다는 연중 안정적 돈가를 형성하는 것이 양돈사양가나 육가공업체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고 돈가현상이 근본적으로는 생산두수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농장수익 증대에 아직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출하두수를 더더욱 극대화하는 것만이 농장 수입극대는 물론 양돈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시기이다. **양돈**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부팀)

5월

중순 돈가 3,200원/kg 이상은 1991년 6월~7월 돈가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돈육 수입 자유화 측면을 고려할 때는 과거 10년간 최고 수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는 현실에서 최고 돈가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는 것과 현 돈가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돈가는 1차적으로 생돈 자체의 수요·공급에 의해 좌우되지만 2차적 요인인 돈육의 수

업체가 자체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없고 지육가 3,200원/kg 이상에서의 가공업체의 손실은 25,000원/두 추정된다.

6월 돈가는 3,200원/kg~3,300원/kg으로 예상된다. 6월초에는 예상돈가를 초과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6월 중순부터 수입육이 국내시장에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다소 돈가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4개월 이상 누적된 특정 부위의 물량 부족을 단시간내에 충당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으로 생각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장기간 지속되어 돈가 강세가 연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관

6월 돈가 3,200~3,300원 유지 전망

산 높으면 골 깊어 - 연말 이후 대비해야

요·공급에 의해 좌우된다.

즉, 돈육 수요·공급에 의해 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최저 2개월에서 최고 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가정하에 현재의 육성돈 출하 현황, 자돈 사육현황, 기후 등을 고려할 때 돈가는 최저 10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3월부터 수입량의 증가와 후지를 제외한 전 부위가 수입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6월 이후에는 돈가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

돈가 영향에 앞서 가공업체의 현실은 다소 암담하다. 지육가 3,000원/kg 이상에서는 가공

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정부, 농가, 협회 등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콜레라 박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한번 더라는 기회는 없다. 무엇이든지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콜레라 문제 외에도 정부 보조금 문제는 농가, 가공업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더 이상 정부에 의지하지 않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다가오는 2000년이 암담할 수 밖에 없다.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양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양돈**



고가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산지 가격은 두당 20만원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육 경락가격도 kg당 평균 3천2백원대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초강세는 현재로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산 돼지고기 냉장육의 경우 소비성수기와 함께 유통가격도 주요 브랜드육의 경우 kg당 8천5백원 이상을 넘어섰다. 그러나 냉동육 가격은 냉장육에 비해서 가격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원료육 구매에 있어 육가공업체들의

육가공업체들은 요즈음 '저승길이 멀지 않았다' 할 정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수입육의 경우 지난 3월 무려 1만2천여톤이 수입,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수입돼 업계의 우려를 낳았으나 큰 영향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입육 유통업체들은 지난달 초순 kg당 50~1백원을 인상시키는데 이어 중순 이후에도 이 정도의 공급가격을 올렸다.

이는 주요 수출국인 EU 국가들의 수출단가가 인상되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다. 따라서



권영철 국장
(미트저널 편집국)

고가시대, 호사다마(好事多魔) 경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육가격의 고가지속에 따라 일부 등급이 좋은 돼지의 경우 두당 24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육가공업체들은 돼지 한 마리를 도축, 가공할 경우 2~3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업체들은 국내 지육가격 상승에 따라 원료육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구매지급률을 68%까지 주는 업체가 대다수에 이르고 있다.

수출업체들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현 상태로라면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를 입는다"며 "출혈수출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따라서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수출단가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최근 돼지고기 시장의 이같은 현상을 비취볼 때 소비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일부 육가공업체들은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가공원료육의 수입육 대체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축종을 통한 대체육 사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돈농가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될 시점이다. **양동**